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무실 Tel (510) 553-9434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이시론(인학) (408) 234-5037 Fax (510) 639-4842
 piccpeter@gmail.com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63, 16-17. 19-20; 64, 2-7
 [화답송] 시편 80(79), 2-3과 15-16. 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름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이다. ◎

[제 2독서] 1코린 1, 3-9
 [복음환호송] 시편 85(84), 8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복음] 마르 13, 33-37

성가	8시 미사	입당 88	봉헌 215 220	성체 156 155	파견 91
	11시 미사	입당 88	봉헌 215 220	성체 156 155	파견 91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1주일(11월 30일)		대림 제 2주일(12월 7일)		대림 제 3주일(12월 14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휘안토니오	1구역:황해정데레사	채성일토마스	2 구역	임승원루카	3 구역
제 1 독서	채성일토마스	1구역:이창용레이몬드	강신히요한	2 구역	초환준베네딕토	3 구역
제 2 독서	정애리스텔라	1구역:이경란베로니카	김영선안젤라	2 구역	최수영베네딕타	3 구역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대림은 올바른 믿음이 내게 발하기를 기다리는 것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시기를 맞이한다.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인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자주 “깨어 있어라.” 는 주님의 말씀을 들곤 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지나간 어제(과거)에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고 내일(오지도 않은 미래)을 걱정하면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에 눈을 감는 사람, 다시 말해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부활을,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는 뜻이리라.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계명을 지키고 적당히 죄를 피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는 듯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있다. 과연 그것만으로 족할까? 굳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마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일 듯 싶다.

그렇다면 올해도 어김없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복음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마르 13, 34)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다시 오심)과 세상 종말은 그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기에 그분께서 갑자기 돌아와 우리의 잠자는 모습을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잠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 실로 매일 매일이 성탄임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가? 그분의 오심(성탄)은 매일 매일 우리의 찾아봄을, 돌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남,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임을 얼마나 깨달으며 봉사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잘못된 믿음(광신, 맹신)으로 오직 나만의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각자 제 소원만을 아뢰기에 급급하지 실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한다. 그러니 남이, 이웃이 되어 주질 못한다. 즉, 올바로 믿질 못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구세주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난 세상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그를 이웃으로 또한 주님으로 알아보고 찾아가 그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올바른 믿음이 내게 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김지훈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강화 본당 주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깨어 있어라

이제 본격적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대림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1월 위령성월이 끝나며 대림시기로 이어지는 전례시기가 참 절묘합니다. 지금 여기 깨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 살아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자기를 잊고 잠들어 있는 불행한 영혼들도 많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무기력과 무감각, 무의욕의 ‘일상의 늪’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하느님 사랑의 현존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수행생활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생활이 지향하는 바도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은 당신 제자들의 공동체는 물론 대림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깨어 있어라.” (마르 13,36-37)

주인을 주님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물론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은총의 대림시기, 오매불망(寤寐不忘) 깨어 당신을 기다릴 것을 신신당부하십니다. 깨어 당신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주님께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진정 깨어 있는 영혼들이 아름답습니다.

깨어 있음은 기다림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 주님을 기다림입니다. 깨어 있음은 희망입니다. 깨어 있을 때 저절로 사라지는 절망입니다. 깨어 있음은 빛입니다. 깨어 있을 때 저절로 사라지는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입니다. 깨어 있음은 충만입니다. 주님 사랑의 충만입니다. 깨어 있음은 갈망입니다. 주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깨어 있음은 기도요, 침묵입니다. 깨어 있음은 찬미이며, 감사입니다. 깨어 있음은 평화요, 기쁨입니다. 깨어 있음은 순수입니다. 깨어 있음은 구원입니다.

결국은 깨어 있음에 대한 예찬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음에 반드시 전제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여 깨어 있음은 그대로 주님의 은총임을 깨달습니다. 깨어 있지 못해 세상 것들에 중독이요, 세상 우상들에 종이 되어 삽니다. 그러니 영혼의 건강에, 영혼의 병과 상처의 치유

에 깨어 있음보다 더 좋은 약도 없습니다. 깨어 있을 때 깨끗한 마음이요, 샘솟는 깨달음에, ‘참 나’의 삶입니다. 깨어 있음, 깨끗한 마음, 깨달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과연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으로 ‘깨어 있기’의 영성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실 수도자들이 끊임없이 바치는 찬미와 감사의 성무일도 역시 ‘깨어 있기’의 영성훈련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깨어 있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는 영혼만이 이사야처럼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는 진흙, 당신은 저희를 빚으신 분, 저희는 모두 당신 손의 작품입니다.” (이사 64,7)

끊임없이 깨어, ‘제 자리’에서 ‘제 일’에 충실할 때 주님을 닮은 주님 손의 작품이 됩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1코린1,8) 아멘.

이수철 신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말씀의 향기

기쁨 발견의 영성

바람에 실려 / 푸르게 날아오는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 더욱 감칠맛 나는
 잣의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람을 / 차별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나에게 /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냈을 때의 /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 배고프지 않다

- 이해인의 시 <기쁨의 맛> -

자신만의 방식으로 날마다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고 요리하는 기쁨을 나름대로 표현해 본 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면 큰일 날 것처럼 살고 있다고, 특히 신부 수녀들의 표정은 너무 근엄하고 경직되어 있어 가까이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습니다. ‘좀 더 웃는 얼굴을 보여달라’ 는 주문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엔 엘레나 포어터의 <파레아나의 편지>가 있는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기쁨의 게임’ 을 실천하여 주인공이 온 마을 사람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성탄 선물 뽑기에서 인형을 받고 싶어하는 어린 파레아나에게 지팡이가 주어지자 서럽게 우는 걸 보고 목사님인 아버지가 말합니다.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너에게 지금 이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걸 기뻐하면 되잖니?” 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도 기쁨의 게임을 생활에 적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주어진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 기쁨의 게임은 빛을 발해서 좋습니다. 잠깐 인내해서 오래 선물 받는 환희심을 기쁨의 게임은 가르쳐 줍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우울의 늪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관계가 어긋나고 복잡해질 때 나는 상황에 맞는 화살기도와 평소에 자주 연습한 기쁨의 게임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하였습니다. 기쁨의 게임을 하는 것은 병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

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간호사가 체온과 혈압을 재러 올 때도 귀찮은 표정 대신 웃으며 대하고, 가장 힘든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을 적에도 ‘이렇게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며 기뻐하고, 문병 온 이들이 더러 맘에 안 드는 말을 해도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헛나오는 거겠지.’ 라고 이해하면서 웃으니, 기쁨의 게임은 조금씩 더 발전해 갔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우리는 대청소도 하고 김장을 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성가연습을 하고 성탄 편지를 쓰고 은인들에게 선물할 과자를 구우며 기뻐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고 예수아기의 구유에 놓을 자신만의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맞이하는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모두 기쁨의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기도 한 착한 마음과 겸손한 용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해인 수녀 · 시인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그리스도 영원한 대사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사제 혹은 대사제로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사제직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저자는 가르침과 권고를 오가는 이 편지를 ‘격려의 말’이라 부르면서(히브 13,22),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새 계약이 이스라엘의 종교인 옛 계약보다 위에 있으며 사실상 이를 대체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구원의 새 계약에서 멀어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체했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옛 계약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계약을 가졌습니다.(갈라 4,24; 1코린 11,25; 2코린 3,6.14 참조)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예레 31,31-34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가 말한 새 계약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약으로 말미암아 옛 계약은 낡고 오래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히브 8,13) 옛 것은 실체인 새것의 그림자일 따름입니다.(히브 8,5; 10,1)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새 계약을 옛 계약과 비교하면서 새 계약의 우수성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 ‘조상들’ 에게는 ‘예언자’ 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 에게는 ‘아드님’ 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히브 1,1-2) 계명을 지키지 않아 죄인이 된 옛 계약의 백성은 속죄의 동물로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새 계약의 백성은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진정한 희생 제사이며, 이 희생 제사야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체하는 유일한 참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정화할 수도 없었고, 사람을 하느님에게

까지 들어 올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바치는 완벽한 희생인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사제가 되시고 죄를 없애는 정화를 실현하셨으며,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히브 9,14-15; 10,22; 13,20)

그분의 피는 우리가 하느님께 자유로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줍니다.(히브 10,19-20)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서 사제직이 완벽히 실현되었습니다. 수난 끝에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셨기 때문입니다.(히브 2,10)

이러한 하느님의 선물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과 인내로(히브 11,1-40; 12,1-13)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 말합니다.(히브 12,14) 그리고 자신을 찬양 제물로 바치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히브 13,15)

송해경 박사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지난주 우리의 정성				
11월 30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구분	8시	11시	주일학교	합계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미사참석인원	85	202	30	317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헌 금	\$609	\$1,403	\$31	\$2,043
	연	유요셉(일왕)	가족	< 교무금 > \$3,340 염명련(11-12) 김원덕(11-12) 정혜경(1-12) 이정연(12) 최몽렬(11) 이진열(11-12) 임승원(11-12) 신기수(11-12) 지기재(10-12) 김종성(9-12) 황혜정(1-12)				
	연	정아네스	가족					
	연	김안드레아(상선)	김요한(요왕)가족					
	연	유베드로/유F.하비에르	김데레사					
	연	한시몬(홍륙)	이베로니카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최정옥	자녀					
	연	박옥철	자녀					
	연	유조형/오옥희	김데레사					
	생	서데레사(춘애)	익명	< 성소후원금 > -				
	생	정안드레아(일양)	송베로니카					
	생	윤루시아(윤선)	윤루카(성진)	< Bishop's Appeal > -				
12월 2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이베드로(학준)기일	이레이몬드(창용)	< 감사헌금 > 정혜경 \$300 전문자 \$200				
	생	육마이클(창우)	육아가다					
12월 3일 수	생	김F.하비에르(두회)	김아네스(순이)	< 2차 헌금 > \$ 565.75				
	생	김말찌나생일	김카타리나					
12월 4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	선종봉사회					
	생	이정우	전수산나	* 김상실 가를로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1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생	전안드레아	전데레사					
12월 5일 금	생	김데레사(정복)	익명					
12월 6일 토	연	김아오스딩(태호)	김안나가족					
	연	김안드레아(상선)	김안나가족					
	생	레지오단원들성화	꾸리아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제 사 항 -

- ◆ 성시간 : 12월 4일(목) 저녁 7시 반 미사
- ◆ 환자 봉성체 : 12월 5일(금) 아침 미사 후부터
- ◆ 성모신심미사 : 12월 6일(토) 아침 7시 반 미사
(미사 후 꾸리아 월례회)
- ◆ 지속적인 성체조배
12월 5일(금) 저녁 9시 ~ 12월 6일(토) 아침 7시까지
- ◆ 2차 헌금 안내
12월 7일(다음주) : Religious Retirement
-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수)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12월 25일(목)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수)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목)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입니다.*
* 24일, 3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 대림절 성경 쓰기 : 요한복음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 성탄 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9일(금)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당일 아침미사 없습니다.)
- ◆ 대림특강
일시 : 12월 14일(일) 미사 중
강사 : 조마오로 수녀님
-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기체초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대건산악회 : 12월, 1월 단체산행은 없습니다.
* 구역반장회의 : 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사목회의 : 12월 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대건회 12월 정기총회
12월 7일(다음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요아킴회/안나회 정기총회 겸 송년회
일시 : 12월 7일(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
행사 :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 선출
점심식사, 가곡 독창/피아노 연주 및 국악마당
* 회원 모든 분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기대합니다.
- ◆ 서북미 꼬미시움 전단원 교육 행사
일시 : 12월 13일(토) 오전 9시 반 ~ 오후 4시 반
장소 : 산호세 성당
주제 : 가두선교(이판석 요셉 신부님 강의)
- ◆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
일시 : 12월 14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친교실
- ◆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 : 11월 10일 ~ 2015년 2월 6일
문의 : <http://ci.catholic.ac.kr>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 Brown Bag 식료품 무료배급
일시 : 매월 첫째와 세 번째 토요일 10시
문의 : 510-580-7880
- ◆ 2014년도 약정하신 교무금과 그 외 약정하신 다른 봉헌금들을 연말 안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안드레아(11/30) : 강시구, 정일양, 장찬호, 고영남, 전덕천, 조기상, 이영길, 김찬곤
*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2/3) : 팽현팔

주일학교 소식

- 오늘은 합동미사입니다.

한국학교 소식

- 12월 6일 : 방학식/양로원 방문(Diamond Care)